“경기 북부 왕실 사찰 다수…원당만 70여 곳”

탁효정 순천대 연구교수, 10월 15일 불교博·봉선사 특별전 학술대회서 ‘조선 경기 왕실원당 특징’ 주제
양주 27개 · 고양군 19개로 밀집해
“승역 확대로 능원묘 수호 증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탁효정 국립순천대 연구교수

“경기 북부 지역은 고려에 이어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도의 관문이자 사회문화적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특히 조선 왕실 능원묘(陵園墓)가 경기 북부 지역에 밀집되면서 왕실 제사와 종교의례 관련 시설이 이 지역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에는 왕실과 관련한 사찰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다.”

탁효정 국립순천대 연구교수는 10월 15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4년 박물관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연계 학술대회에서 조선시대 경기 북부 사찰과 왕실의 밀접한 관계를 고찰했다. 연계 학술대회는 경기 북부 지역의 왕실원당과 불교문화유산 등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박물관의 학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시대 경기 북부 왕실원당의 분포와 특징’을 주제로 발제한 탁 연구교수는 “개국초부터 조선말까지 불교를 깊이 신행한 조선 왕실은 전국 각지에 기도처를 마련했다”며 “그 중 왕과 왕비, 후궁, 왕자, 공주 등 왕친의 진영이나 위패, 전패, 어필 등을 봉안한 사찰을 왕실원당이라 칭했다”고 설명했다.

왕실원당은 △궁궐 안팎에 설치돼 왕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내원당 △왕실 능원묘의 수호를 담당한 사찰 △왕실 구성원의 안녕과 축원을 담당하는 위축원당, 즉 축원당 △태실의 보호와 태실 주인의 안녕을 발원하는 태실수호사찰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탁 연구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왕실원당은 250여 곳이며, 경기 지역 왕실원당은 약 100곳에 이른다. 그 중 경기 북부에서만 56개 사찰에서 70여 곳의 원당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가 27개로 가장 많고, 고양군(19개), 개성(7개), 장단(5개)이 뒤를 이었다. 원당 유형별로 살펴보면 왕실 능원묘 관련 원당은 34개(능침사 7회, 재사 4회, 조포사 21회, 조포속사 2회), 위축원당 34개, 진전속사 1개, 태실수호사찰 1개이다.

탁 연구교수는 “조선 전기에는 개성과 장단, 풍덕 등 고려의 옛 수도와 그 주변에 있던 사찰에 원당이 많이 설치됐고, 조선 후기에는 양주와 고양에 주로 설치됐다”며 “이는 왕실과 관련된 불사를 설행하는 주요 사찰들이 개성에서 한양 주변으로 이동한 점과 더불어 조선 후기 승역 확대에 따라 능원묘를 수호하는 원당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에 설치된 왕실원당 중에서도 중참 규모가 컸던 대표 사찰로는 봉선사, 개경사, 대자암, 정인사를 꼽았다. 탁 연구교수는 이 사찰들이 왕실구성원의 능묘 근처에 설치돼 명복을 빌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탁 연구교수는 “조선에서는 왕실뿐 아니라 사대부, 일반민까지 500년 내내 불교식 상장례 의식을 이어갔다.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불교 추천의례는 조선 사부대중을 위무하고 사찰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조선 불교를 내세중심적 성향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교 사회에서 불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존속 기반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 스님, 유근자 국립순천대 연구교수, 손영문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 최엽 동국대 미술학부 대우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학술대회에 앞서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봉선사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사찰의 참된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되돌아보는 자리”라며 “소중한 경기 북부지역 성보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봉선사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자료로 남아 봉선사 본말사 성보가 잘 보존되고, 많은 국민에게 경기 북부 문화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각산 백련사 불교문화유산 조명한다

태고종 총무원, 특별학술대회
오는 10월26일 국박 소강당서

통일신라시대 진표 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6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삼각산 정토백련사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신광희)가 주관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산에 자리한 백련사는 통일신라의 진표 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4대 비보사찰(裨補寺刹) 중 하나로 본래 정토사(淨土寺)로 불리다가 조선 세조대에 이르러 세조의 딸 의숙옹주가 죽자 백련산에 묘를 쓰고 원찰로 삼으면서 백련사(白蓮寺)로 이름을 바꿨다.

학술대회는 탁효정 순천대 학술연구교수가 ‘백련사의 역사와 문화’를, 김수현 고양특례시 학예연구사가 ‘서울 백련사 소장 동종 연구’를, 조태건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팀장이 ‘삼각산 백련사 명부전 존상 연구’를, 최엽 동국대 대우교수가 ‘경티절 백련사 불화의 성격과 의의’를,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현주 스님이 ‘서울 백련사의 신중신앙과 불화제작양상’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현재 백련사 주석 중인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백련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려 향후 종단의 대표 사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학술대회를 통해 “백련사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 할 계획”이라면서 “중요 성보문화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천년고찰 서방정토 백련사의 역사성과 불교문화의 가치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학술대회 이후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 지정 신청을,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권속 일괄’(비지정)과 약사전, 대방 등에 봉안되어 있는 중요 성보문화유산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순국선열 공덕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회, 영산문화축제
10월 12일 서대문독립공원 일원
영산재, 추도식, 문화공연 등 진행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2일 영산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선열과 애국열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현중 스님)는 10월 12일 서대문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 특설무대에서 ‘제4회 한민족 영산문화축제’를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영산문화축제에는 전국비구니회 회원스님들이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는 안행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영산재, 추도식, 추모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공덕을 기렸다. 운경 스님은 “저희 후손들은 선열들의 희생과 구국정신으로 전개한 독립운동의 은덕으로 기사회생해 단일독립국가로 최빈국에서 세계10위의 경제강국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이 더 안정되고 국민화합으로 평화통일이 성취되길 살펴달라”고 기원했다.

이어 “지난 고통과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극락세계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발원했으며, 법문 이후에는 참석대중과 ‘아미타불’ 정근을 하며 호국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봉헌사를 통해 “호국의 선열들께서는 후손들이 잊지 않음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청하며 전국비구니회 수행자들 모두는 거룩한 희생에 보은 올린다”고 추모했다.

내외빈들의 추도사도 이어졌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대중은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예진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신중일 기자

“연등회 대중에 알릴 창작곡 모집합니다”

연등회보존위, 음악 공모전
내년 1월 7~9일 접수 가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통일신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등회. 연등회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음악 공모전이 열린다.

연등회보존위원회가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연등회 음악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중이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음악으로, 연등회 주제에 부합하는 창작곡이면 된다.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곡이되, 비교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정신이 담긴 곡을 선호한다. 또 국악 선율 및 국악기 사용을 권장한다.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직접 방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연등회보존위원회)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LLF@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연등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참가신청서와 음원, 악보와 노랫말을 제출하면 된다. 음원은 mp3파일 형식(영상 불가)으로 제작 돼야 하며 보컬 가이드는 필수로 담겨야 한다. 개인 혹은 단체 최대 3곡까지 응모할 수 있고, 순수 창작곡만 가능하다. 음악 길이(전주·간주 포함)는 3~4분 내외다.

당선작 발표는 개별 연락을 통해 통지되며, 당선작은 연등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입선에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형형색색 조계사 도량 국화처럼,
현대불교신문사의 다가올 30년도
활짝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